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12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흡수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음

성경: 고전 11:3, 골 2:19, 계 22:1-2상, 겔 1:22, 26, 계 3:21

- I. 우리는 신성한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 고전 11:3.
- A. 여기에서 모든 사람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권위이시라는 것은 개인들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며(엡 5:23),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머리이시다.
 - B. 먼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오지 않고 머리의 권위를 취하려고 한 것이 천사들의 타락의 원인이었다. 우리는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언하기 원한다 — 사 14:12-15, 고전 11:2-3, 10.
 - C.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어 모든 사람이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반사한다 — 엡 1:10, 고전 11:10, 빌 2:5-11.
 - D.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계신다 — 요 5:19, 30.
- II. “머리를 붙들지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골 2:19.
- A.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골 2:19)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갖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붙잡지 않을 때 차이점들이 발생한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지체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B. 우리는 로마서 15장 6절의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를 에베소서 2장 15절의 ‘한 새 사람’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C. 한 새사람인 몸의 머리는 몸의 인격이고, 이 인격은 한 가지를 말하는 한 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모두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취할 것이고 모두 한 입을 갖고 한마음 한뜻 안에서 같은 것,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유일한 가르침을 말할 것이다 — 딤후전 1:3-4, 엡 5:32.
 - D.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머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하는 요소를 흡수한다. 머리의 풍성들을 흡수함으로써 몸은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증가로 자란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한다.
 - 1.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을 흡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을 누리기 위해 30 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약함을 잊어야 하고, 단순히 주님을 누리고 흡수하기 위해 시간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3. 우리는 이렇게 그분과 교통할 때 그분의 풍성들을 흡수할 것이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랄 것이다.

I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하여 그분의 보좌 아래 있어야 한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린양-하나님,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 A. 요한계시록 22 장 1 절과 2 절 상반절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는 그 영—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보좌, 곧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가를 묘사한다 — 비교, 요 4:14 하.
- B. 거룩한 성의 길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순금이다.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21:21 하, 22:1.
- C. 또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신 그 영의 흐름을 따라 얻을 수 있는 생명 공급이다. 그 영께서 흐르시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 있다 — 계 22:2 상.
- D. 어린양-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집의 행정,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다.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신 분이셨고, 구속하신 어린양이 되셨고, 결국 생명 주시는 영, 흐르시는 영이 되셨다 — 요 1:14, 29, 고전 15:45 하.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마다 즉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들로 충만한 무언가가 흐른다는 느낌을 갖는다.
 2. 매일 아침 우리는 일어난 후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머리의 권위 아래 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주님, 저의 생활 안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저의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주님, 저의 일상생활과 저의 하루 전체를 당신의 보좌 아래로 이끌어 주십시오.”
 3.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러한 기도를 삼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가질 것이고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우리의 거룩한 길, 우리의 유일한 길로 누릴 것이고,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 계 22:14, 17.
 4. 우리가 생명수의 내적인 흐름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삼일 하나님의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와 권위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삼일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그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 계 22:3-5.
- E.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실지적인 벨렐, 하나님의 처소)이다.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 히 4:16, 롬 5:17, 21, 계 4:1-2, 22:1, 롬 8:34, 10, 엡 2:22, 창 28:12-17, 요 1:51.
- F. 보좌에 계신 분은 어린양-하나님이며, 어린양은 등이 되시고 하나님은 등 안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구속하시는 분, 비추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체험하여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누리고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누릴 것이다 — 계 21:23, 22:1-2, 21:21 하.
- G.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은 홍옥수(붉은색은 구속을 의미함)와 벽옥(질은 녹색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함)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모든 존재의 수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지니게 될 것이다 — 계 4:3, 21:11.

IV. 에스겔서 1장은 맑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을 제시한다 — 겔 1:22, 26.

- A. 우리는 두려운 수정같이 맑은 영적 하늘(맑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 행 24:16, 딤후전 1:5, 3:9, 딤후 1:3.
- B. 수정같이 맑은 창공 위의 청옥의 보좌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의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 겔 1:26, 히 4:16, 롬 5:17, 21.
- C. 우리의 영적 체험의 정점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 D.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 안에서 보좌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 골 1:18 하, 겔 1:5, 비교 1:26.
- E. 보좌 위에 계신 분은 사람-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겔 1:26, 요 6:62, 행 7:56, 비교 빌 2:9-11, 롬 10:12-13.
1.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은 호박금과 불의 모습 — 허리 위의 모습은 호박금, 허리 아래의 모습은 불 — 을 지니고 있다 — 겔 1:27-28.
 2. 사람의 상체 곧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감각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부으로서 그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그분의 본성과 기질에 따르면,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을 상징하는 호박금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3. 사람의 몸의 하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인 것은 주님의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 하는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한다 — 비교 겔 1:4.
- F.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일하시어 사람이 보좌 위에 있게 하는 것이다 —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 계 3:21.
- G. 개척자로서 주 예수님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시고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다 — 히 2:6-11, 계 22:5.
- H.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좌로 이끌기를 갈망하신다 — 사 14:12-14.
1. 사탄의 권좌는 야심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관념을 가진 의견들로 구성된 세상이다. 이 셋이 분열을 초래할 때, 세상은 '악한 자'가 된다 — 계 2:12-13 상, 요 17:15.
 2. 세상과 사탄의 권좌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3.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접촉하고 날마다 그 영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 거쳐인 우리 자신에서 나와 우리의 새 거쳐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 요 17:17, 21, 비교, 계 2:17.
 4. 따라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쳐를 정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다스려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투명하고 밝고 신선하고 살아 있게 만드실 것이다 — 엡 3:16-19, 계 22:1, 21:11.